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인터뷰

소설 <군함도> 작가
한수산

세상읽기

시계와 시간

옛 그림과 차 한잔

그림 밖으로 흘러나오는
폭포소리, 들리시나요

언론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이곳은 울릉도 나리분지 원시림. 하얀 부채처럼, 레이스 달린 양산처럼, 옛날 동네 문방구에서 팔던 20원짜리 장난감 낙하산처럼 보이는 꽃을 피운 이 여러해살이 초본식물의 이름은 '섬바디'. Somebody가 아니라 순우리말이다. 7월, 8월이면 이렇게 꽃을 피워 올린다. 땀을 흘리며 몇 시간 걸어 올라가는 동안 곳곳에서 섬바디들이 살랑거리며 더위를 식혀주었다. 셔터를 누를 때, 숲 사이로 빛이 들어왔는데 내 앞쪽으로는 그들이 드리워져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딱 1년 전 울릉도에서 만났던 신비스러운 섬바디. 울릉도에 가면 섬바디를 놓치지 마시라.

CONTENTS

2017 August Vol.206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goo.gl/t9Kjeu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02 클로즈업

04 인터뷰

소설가 한수산

06 미디어트렌드

구글세

07 심리학브런치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08 언론법 이모저모

과잉보도

09 세상읽기

시계와 시간

10 언론중재위원회 NOW

언론 그 자체를 알게 해준 소중한 4개월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들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진짜다

12 옛 그림과 차 한잔

그림 밖으로 흘러나오는 폭포소리, 들리시나요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웹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소년을 병들고 외로운 노인으로 만들었나

소설가 한수산

수상 1991년 제36회 현대문학상
1984년 제4회 녹원문학상
1977년 제1회 오늘의 작가상
저서 <군함도> (2016)
<까마귀> (2003)
<부초> (1976) 외 다수

66

‘군함도’라는 별칭으로 더욱 익숙한 섬 ‘하시마’.
1940년대 조선의 젊은이들이 석탄 채굴을 위해 강제노역을 당한 곳이다.
누군가에겐 반세기도 더 된 오래된 일일지라도
맨몸으로 천 미터 지하 막장에 들어가 생사를 넘나든 이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늘의 이야기다.
한이 서린 민족의 역사를 알리고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
빛 깊은 마음으로 써내려간
소설 <군함도>의 저자 한수산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99

Q | <군함도> 이전에 <까마귀>라는 작품을 쓰셨어요. <까마귀> 역시 강제노역과 원폭피해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제목을 ‘까마귀’라고 붙이셨나요?

A | 일본에서 까마귀는 기피하는 동물이에요. 아이들이 까마귀를 보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조선징이라 비하하며 차별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탄광에서 일하며 탄가루를 뒤집어쓴 조선인의 모습이 까마귀와 닮았어요. 하지만 고생하신 분들에게 더는 까마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고,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자 수난의 압축판이 군함도이기 때문에 <군함도>라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Q. 소설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작가로서 특별히 아끼는 인물이 있을까요?

A | 군함도에서 죽은 사람을 화장할 때 작성한 사망확인서와 매장허가서가 남아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 본적, 나이 그리고 병명과 사망 사유까지 상세히 적혀있죠. 복사본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면 중 20대의 작부 여성이 크레졸(소독약)을 먹고 음독자살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싶었고 그렇게 ‘금화’라는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에서 <까마귀> 번역이 마무리될 무렵 군함도를 방문했었어요.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 때문에 입도하지는 못하고 주변만 맴돌았죠.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욱한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금화가 서있는 것 같은 환영이 보였거든요. 마치 내 얘기를 써줘서 고맙다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 속 금화는 기업 위안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군 위안부만 논란이 되어왔는데, 기업 위안부 역시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 자료를 봉쇄할 것이고,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억은 점차 윤색될텐데 걱정입니다.

Q | 주인공 ‘지상’은 부유한 친일파 집안의 아들입니다. 형 대신 강제 징용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그런 식의 설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A | 사람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민족의식을 갖게 되진 않아요. 지상이 실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민족의식을 갖게끔 하고 싶었어요. 잘 먹고 잘 자라온 지상이 나라를 잃은 게 왜 슬픈 일인지 고난을 경험하며 깨우치는 것이죠. 결말을 두고 지상을 죽일 것인지 고민했어요. 그랬다면 독자들을 평평 울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조국으로 돌아가 남은 이들을 치유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상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Q | 〈군함도〉를 쓰기위한 자료수집이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A | 〈군함도〉는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지금 〈군함도〉를 쓰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증언을 해주셨던 분들이 모두 돌아가셨고 예전처럼 자세한 자료수집도 어렵거든요. 1989년에 군함도를 알게 된 뒤, 1990년에 처음 갔는데 당시에는 미쓰비시 사유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출입 금지였지만 지키는 이가 없어 얼마든지 섬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정우란 분이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셨어요. 열다섯 살에 군함도에 끌려간 서정우 씨가 병이 들자 나가사키의 병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조선소에서 배의 녹을 닦는 일을 했는데 결국 원자폭탄에 피폭되었죠. 등은 화상으로 움푹 패었고, 폐와 콩팥은 한쪽만 남았죠. 그런 분과 군함도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는데 ‘이곳에 앉아 저 기쁨이 조선 땅이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제 소설에도 꼭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Q | 독자로서 〈군함도〉를 읽고 난 소감은 일종의 부채의식이었습니다. 작가로서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요?

A | 다시 서정우씨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재를 끝내고 서정우 씨에게 큰절을 하며 다음에 올 때는 좋은 소설을 써서 가져오겠다고 약

속하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들끓더라고요. ‘누가, 무엇이, 이 열다섯 살 소년을 병들고 외로운 노인으로 만들었나.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린 희생자인데, 그렇다면 가해자 일본의 잘못인가? 조선은 어쩌다 허망하게 나라를 빼앗겼나?’ 하는 생각에 화가 너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무릎이 나온 파자마를 입은 채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와서는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서는 서정우 씨의 모습을 보며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쓰고야 만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군함도〉가 나오기까지 27년이 걸렸는데, 마음의 빗을 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27년이에요. 어떻게든 글을 써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27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을 들고 다시 찾아갔더니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제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과거를 현재진행형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의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소설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화하고자 했습니다.



Q |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사설 23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설 명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죠. 등재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A | 군함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자격이 없습니다. 일본은 191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지하에 남은 탄광의 잔존물인 유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함도에서 가

장 오래된 건물은 일당을 받는 인부들이 묵었던 숙소인데 1910년이 아닌 1916년에 지어졌습니다. 유구 또한 없고요.

강제노역이 있었기 때문에 등재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숨기지 않고 교훈으로 삼고자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것은 타당하니까요. 즉 한국은 등재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명기하는 조건을 관철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든 언론이든 핵심을 잘못잡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Q | 일제에 의한 강제노역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없으신지요?

A | 모든 기사가 일제히 군함도 강제노역의 사망자가 122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함도에서 사망하고 화장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1925년부터 45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적힌 한국인 사망자 122명에는 강제노역의 희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군함도에 갔다 사고로 또는 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도 있고, 아이를 낳다가 죽은 임산부도 있고, 다섯 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명백한 사실은 1943부터 45년까지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급증하는데, 이 시기에 일본이 많은 조선인들을 끌고 갔고, 미숙련 노동자를 위험한 탄광에 들여보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43년 이후 가스 사고로 인한 질식사자 많습니다. 이런 기록에 일본의 범죄적 행위들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122명이 죽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에 한국의 보도 내용이 거짓이며 나아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 사실에 매달리지 말고, 올바른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글세(Google tax)란 글로벌인터넷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각종 세금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금 부과와 주요 대상이 구글에 집중되어 있어 '구글세'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인터넷기업들이 수익에 비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 회피는 인터넷의 속성과 국가간 조세 제도의 상이성이 결합됨으로써 야기된다. 보통 기업에 대한 과세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데 인터넷 거래의 경우 소비가 이루어진 국가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즉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 또한 각 국가별로 조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기업들은 조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아닌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서 주요 수익을 만들어냄으로써 과세 기준을 낮추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법인세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인터넷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높은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둘째, 소비자에 대한 세금 부과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구글 등 글로벌인터넷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뉴스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의 지불이다. 즉

검색 뉴스에 대하여 구글 등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신문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글 뉴스의 경우,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일부만이 노출되지만, 인터넷신문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

구글세 논의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은 자국 서비스가 아닌 구글 등과 같은 해외 기업이 갖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입법이 실제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국가간 조세 제도의 상이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달리 온라인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세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앱마켓, 온라인 광고 등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구글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구글 등 글로벌인터넷기업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내법상 구글은 국내 매출액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세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업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도 검색 뉴스에 대해서 구글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법상 포털이 기사를 외부로 링크하는 방식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도 자사 뉴스 섹션이 아닌, 검색 뉴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신문사도 주로 기사에 대한 접근이 포털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주 수입원인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포털의 검색 뉴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의 경우 구글 등 글로벌인터넷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작권료의 경우는 관련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실제로 2050년에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27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굉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치매는 나이에 비해 기억력 등의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분명한 질병입니다. 한편 치매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깜빡하는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치매가 다른 점은 단순히 기억력이 얼마나 나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자주 쓰지는 않지만 중요한 물건이라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보이지는 않고, 도무지 기억도 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단순한 건망증이라면 “내가 왜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지? 치매인가 봐!”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반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중요한 물건을 둔 곳을 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특히 누가 뭘 훔쳐갔다는 망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기억을 잘하기 위한 기억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감정과 함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긴한 것은 바로 메모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한번 들으면 다 기억했는데...’ 라며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20대에 의과대학에서 사흘마다 시험을 치렀던 저도 중년에 접어들니 장 보러 가서 꼭 한 가지씩을 빠뜨리고 옵니다. “난 더 어려운 것도 외웠는데 사야하는 물건을 까먹다니”라며 슬퍼하고 분노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적으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쉬운 원리를,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못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기억력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평소 기억나던 것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울하게



나 감정 기복이 심한 때에는 기억력도 함께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울할 때 치매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은 우울할 때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현재 감정에 따라 과거의 사건도 다르게 기억합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지금 우울하고 슬프다면, 나는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 같고 운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컴퓨터처럼 모든 기억을 평등한 용량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기억은 더 잘 꺼내보고, 어떤 기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좋게 하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놀랍게도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의 명령으로 몸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몸의 활동으로 인해서 뇌가 자극받기도 합니다. 담배는 일시적으로는 집중이 잘 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혈관에 악영향을 주므로 치매의 위험이 커지죠. 술만큼 나쁜 것이 없는데 술은 간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뇌에 더 안 좋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싱거운 비법이지만 정말로 실천한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잉보도

마트든, 아파트든 한적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다. 이게 다 언론보도,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론에 보도된 ‘범죄사건’ 때문이다.

2년 전쯤 마트 주차장에서, 그것도 대낮에 30대 여성이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골프연습장이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었다.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납치되었다는 피해자는 3일 후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범인 검거 후 이루어진 현장검증에서 흥분한 시민들은 범인들을 향해 “이 악마들아” 외쳤다고 한다.

흔히 ‘골프연습장 부녀자 납치살인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범행을 범인 검거에서부터 현장검증 당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언론이 집중 조명했다. 언론의 취재열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으리라 본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는 점, 범인들의 대담성, 그리고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도주한 범인들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범인들의 이름, 나이는 물론 얼굴까지 언론에 모두 공개되었다. 그 덕분이었을까. 공개수배 5일 만에 서울의 한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범인들이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문제는 체포된 이후에도 범인들의 얼굴과 모습이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 범죄자의 얼굴은 충분히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청소년이 아니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골프연습장 부녀자 납치살인사건’에서의 얼굴

공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공개수배로 인해 이미 얼굴이 알려진 피의자들이니 검거 이후에도 계속 공개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개수배된 범인은 체포 후에도 얼굴을 계속 공개해도 좋은 것일까.

경찰청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공개수배라도 떠나르기, 무단복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검거되어 더 이상 공개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게시물·방영물 등을 회수 및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은 피의자 검거 이후라면 얼굴 공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골프연습장 부녀자 납치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한동안 뜨거웠던 취재 열기는 식었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7월 12일 이후로 거의 기사화되고 있지도 않다. 범인들의 얼굴 공개는 물론이고 현장검증 시의 흥분한 시민들의 반응에 절규하며 쓰러졌다는 피해자 가족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며 범죄에 대한 공분을 표출했던 그 술한 언론보도는 무엇을 남겼는가.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과잉’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혹시 과잉은 아니었을까.

언론보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언론보도의 양은 사회적 관심의 크기에 비례하며 기사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사회적 자산은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재범 방지라든가 범죄 예방에 대한 기여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과잉된 범죄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 해로운 법이다. 범죄에 대한 과잉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일수록 흥분을 자제하고 차분히 범죄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널리즘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닐까.

시계와 시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스며드는 것’이란 시의 일부입니다. 뱃속에 알을 가득 품은 꽃게에게 끓인 간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꽃게는 알을 지키려고 오프드린 체 버둥거려봅니다. 살 속에 스며드는 간장을 더는 어찌할 수 없어 꽃게는 알들에게 가만히 말합니다. 애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미가 덮어 준 마지막 말 이불이었습니니다. 안도현 시인이 썼습니니다.

세월호가 천일 만에 모로 누운 채 물으로 올라왔습니다. 조타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 벽시계는 10시 17분 12초에 멎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의 침수 한계선은 9시 34분에 수면에 잠깁니다. 전기 동력으로 작동하던 벽시계는 바닷물이 차오를 때에도 들숨과 날숨을 쉬며 짹짹 짹 짹 일을 했습니다. 10시 10분, 11명의 학생들이 선실을 빠져나가 구조되었습니다. 10시 13분, 승객 일부가 선미 쪽 출입문으로 탈출했습니다. 10시 17분 6초, 세월호는 전복되었습니다. 간장처럼 스며드는 바닷물에 온 몸이 잠길 때 벽시계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에게 애절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애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6초 후 시계 식구들의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시계를 사줄 수 있지만 시간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을 사주는 나라가 백성들의 개별 행복까지 일구어주지 못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지헌법 시대의 국가 역할과 한계를 꼬집는 듯합니다. 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시계를 권력의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시간의 속도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하긴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일부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연예인들의 역대 명품 시계 분쟁 사건들을 보면, 시계가 상징적인 사회적 자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력과 검찰과 정보기관과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분탕질을 벌였다는 ‘눈두렁’ 조작 의혹은 시계의 처연한 정치사회적 신세를 보여줍니다.

국가가 비록 국민들에게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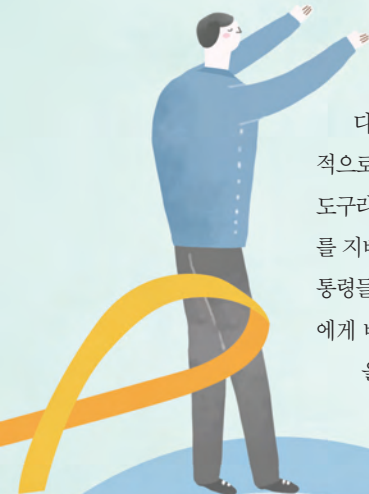


나누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 앞에 엄정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멎으면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어서 시간과 생명의 존재는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란 국민의 시간을 지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 권리의 출발점은 살아 있는 시간입니다. 국민은 시간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웃고 떠들며 울고불고합니다. 잡아먹을 듯 격렬하게 싸운 엄마와 딸이 겸연쩍어하면서 슬그머니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계란 부침개가 덜 익었다고 통명스럽게 문을 박차고 나간 아들이 해질녘 돌아와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고 말을 건네는 것, 동무들과 친방지 축 뛰어놀다가 훌쩍해진 아이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돌아오자마자 허겁지겁 식은 달걀 지짐이를 입질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도 국가가 시간을 굳건히 지켜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고장 난 시계를 무료로 고쳐주겠다고 생색을 내는 것보다 국가가 앞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정지된 시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재난에 희생된 국민들이 이역만리 거친 들판에 이름표 없이 홀로 누워있을 때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국가는 그들을 꼭 데려와야 합니다. 천 길 낭떠러지에 묻혔거나 거센 격랑의 바다 밑에 간헐더라도 국가는 반드시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다준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된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형클어지고 정지된 시간을 복원시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렇저렇하게 내버려 두거나 이악하게 아득바득 몽개는 국가 행위는 평온해야 할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세월호 사건의 기간 제 교사들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고귀한 죽음마저 폄하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숨진 선생님과 그 가족의 시간을 국가가 훔쳐간 것과 진배없었지요.

탈출하기 쉬운 곳에 계시다가 학생들을 구하러 4층 선실로 뛰어간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가가 구조하러 오지 않는 그 어두운 선실에 간장보다 짠 바닷물이 울컥울컥 차오를 때, 품 안에 모여든 학생들을 한 가슴 껴안고 말씀하셨겠지요. 애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옷깃을 여미고 삼가 머리 숙입니다.



언론 그 자체를 알게 해준 소중한 4개월

제1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활동을 마치며



▶ 왼쪽부터 홍단비, 정은우, 백지원, 서연, 김동은, 김찬휘

중학교 때 언론인이 되어겠다고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했다. 남보다 좀 더 빠르게 진로를 결정한만큼 꾸준히 또 부지런히 한발 한발 내디뎠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자 언론, 방송 관련 대외활동을 찾아보던 중 언론중재위원회에서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장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발대식부터 팀 미션까지 활동 기간 동안 적어도 두세 번은 서울에 있는 위원회를 방문해야 할 것이 지방 학생인 나로서는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언론의 한 축을 이루는 위원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지원을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기자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난 4개월 동안 위원회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언론과 위원회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다.

3월부터 5월까지 3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가운데, 후보자와 선거보도의 교점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소개했다. 선심위의 구성부터, 심의 과정과 조치까지 자세한 내용을 다루면서 선거 기사를 보도하는데 있어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공영방송사 KBS가 군부대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관계 문제를 보도하며 외설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해당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옹호한 행위를 지적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보도를 보며 기사를 작성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기사는 가짜뉴스로 칭해지는 거짓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는 요즘, 저널리즘의 기본을 다시금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저널리즘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다루었다. 기자단 담당자인 최은진 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피드백을 받으며 깊이 있는 양질의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6월에는 팀 미션이 진행되었다. '현직 언론인 인터뷰'를 주제로 정하고 평소에 꼭 만나보고 싶었던 JTBC의 오대영 기자님을 페이스북을 통해 섭외했다. 취재 및 보도 과정과 기자 지망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 수 있었다. 생생한 보도 현장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

기자단에 지원할 당시만 해도 위원회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막연했다. 위원회가 '잘못된 언론보도를 정정해준다는 것' 외에는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개월의 기자단 활동은 이러한 나의 무지와 막연함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시간이었다. 위원회가 언론피해 상담 및 구제뿐만 아니라 시정권고, 선거기사심의, 교육 등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바른 언론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SNS 기자단의 활동을 보고 매력을 느껴 제3기 SNS 기자단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2기는 1기 인원의 절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지원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이라 하여 기사 내용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로 귀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위원회 SNS 기자단에게 중요한 점은 '언론에 대한 관심'과 '취재 열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첫 대외활동이었음에도 내 이름을 걸고 기사를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과 지방학생에 대한 위원회의 배려 덕분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언론' 그 자체를 알게 해 준 <제1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운영자분과 동료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JTBC 오대영 기자와 함께

들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진짜다

- 영화 <겟아웃>으로 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G E T O U T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혹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며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영화 <겟아웃>을 통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태도'와 '말투' 그리고 '표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지요.

잘 생기고 건장한 흑인 청년 크리스. 그에게는 백인 여자친구 로즈가 있습니다. 로즈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간 크리스를 그녀의 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로즈의 아버지 딘은 신경외과 의사이며 어머니 미시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에게 집을 구경시켜주고, 가족의 비밀스런 이야기도 들려주며 그가 자신들을 신뢰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정원사와 가정부로 인해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크리스는 흑인 정원사의 적대적인(마치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 때문에 그가 로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흑인 가정부의 행동과 눈빛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 아닌 '태도'와 '말투', '표정'은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든 파티가 있던 날, 크리스는 손님 중 유일한 흑인 로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크리스 여기서 다른 형제를 만나니 기쁘네요.

로건 안녕하세요. 네 저도 무척 기쁘네요.

크리스 (가웃거리며 이상하다고 생각함)

로건의일행 여기 있었네. 저쪽에서 너를 찾은구나, 로건.

로건 가봐야겠네요.

크리스 (주먹을 내밀며 흑인식 인사를 건넨)

로건 (악수를 건넨)

크리스는 로건의 말과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우리말로 옮겨놓으니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흑인과 백인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좀 다른 법인데, 말은 물론 로건의 행동과 표정 등이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크리스는 로건이 흑인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크리스의 질문에 흑인 가정부는 "이 집 사람들은 나에게 모두 잘해줘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표정에서 크리스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저 여자는 미친 게 틀림없어"라고 혼잣말을 하지요. 이처럼 표정이나 태도가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대화의 상대방은 혼란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하는 제1원칙은 '말과 행동(태도, 표정)의 일치'입니다. 이 제1원칙이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기'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기' 등의 태도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은 순간적으로 이뤄집니다. 소위 '직감'이라고 하지요. 파티가 끝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크리스에게 그 집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어쩐지 그 미소가 불편합니다. 이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꾸며내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다 알거든요. 나의 진실한 '태도'와 '말투', '표정'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고 속에서 스릴러 영화 <겟아웃>의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저의 '태도'와 '말투', '표정'을 직접 보신다면 그때는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화 속 대사를 끝으로 이 글을 마치죠. "크리스, 네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야. 너의 내적인 부분은 어딘가에 숨어서 아주 절제된 의식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림 밖으로 흘러나오는 폭포소리, 들리시나요



겸재 정선 <박연폭포>, 1750년대. 종이에 수묵, 119.7x52.2cm 개인소장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전 국토가 이글이글 타오르네요. 폭폭 찌는 가마솥 더위에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월평균 섭씨 10도가 넘는 달이 1년 중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라 정의하는데, 제주 목포 부산은 이미 이에 해당된다네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에야 에어컨이며 냉장고도 있지만 그 당시엔 이 숨 막히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지 궁금합니다.

폭염을 피해 선인들이 즐겨 찾았던 곳은 폭포와 계곡입니다. 특히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폭포 앞에서 선비들이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그린 서화가 여럿 전해지는 것을 보면 수백 년 전 조상들의 피서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조선시대 폭포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겸재 정선(1676~1759)의 <박연폭포>입니다. 미술 교과서에도 실린 이 그림은 겸재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개성 박연폭포를 수묵으로 그린 작품이지요. 겸재는 고모담을 향해 시원스레 내리 꽂히는 박연폭포의 물줄기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폭포 길이를 아주 길게 늘였습니다. 때문에 그림에 폭포의 웅장한 소리까지 담겼답니다. 가로 120m에 이르는 고모담과 폭포 주위 바위산을 과감하게 축약해, 화폭을 아주 길게 구성했지요.

미술사학자 이태호 명지대 교수는 <박연폭포>를 <금강전도> <인왕제색도>와 더불어 겸재의 ‘진경산수화 3대 걸작’으로 꼽습니다. 수묵으로 폭포의 장관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 현장의 감흥을 생생하게 전한다고 평하면서요. 이 교수는 “30년 전 한 수장가의 집에서 <박연폭포>를 처음 본 순간, 폭포소리의 위력에 그만 뒤로 넘어져버렸다”고 저서(‘한국미술사의 라이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림이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거지요.

겸재는 진경산수를 창안한 대가로, 마음 가는 대로 풍경을 그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실경을 형사(形似, 닮게 그리는 것)하기보다는, 자신의 감흥을 살려 독창적으로 표현했지요. 겸재는 사대부가 출신이지만 생의 전반기를 ‘사인(士人) 화가’로 쉬엄쉬엄 활동했습니다. 사인이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가리키는데, 겸재의 재능을 알아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리며 소일했답니다.

검재는 마흔한 살이 되어서야 관직에 올라 팔순의 나이까지 40년간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 중반 이후로는 관직보다는 화업에 더 열중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10년간은 몰아치듯 그림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의 걸작이 이 시기 작품이고, 박연폭포 또한 70대 후반에 그린 것입니다.

검재의 박연폭포는 먹을 대담하게 활용해 현장에서 느낀 감흥을 마치 취하듯 그려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묘사에도 한껏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관념산수에서 벗어나 조선의 산하를 진경화풍으로 완성한 검재의 그림에 대해 후대 화가인 표암 강세황(1713~91)은 “평생 익힌 대로 열마준법(피마준법을 변형시킨 거친 필법)을 휘둘렀으나 사진(寫眞)이라 하기엔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표암 역시 박연폭포를 그렸습니다. 1757년 여름, 개성 유수였던 오수채(1692~1759)의 초대로 송도 일대를 둘러보고 <송도기행첩>(1757)을 남겼지요. 경치 좋은 곳에 근무하던 지역의 관리들이 지인들을 초청해 함께 유람하고, 이를 시나 그림으로 남긴 사례가 조선조에 종종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신선유람인 듯 하지만 매우 인문학적, 예술적인 여행인 셈이지요.

표암은 이 여행을 통해 16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하나가 <박연>입니다. 그의 <박연>은 실제의 박연폭포 풍경과 매우 흡사합니다. 박연폭포 일대의 풍광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분하게 화폭에 옮겼습니다. 평생 ‘속기 없는 문인화’를 추구했던 화가답게 겹겹이 이어진 암벽과 그 사이 흰 포말을 일으키며 낙하하는 폭포를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같은 풍경을 그렸는데도 이렇게 상반된 그림이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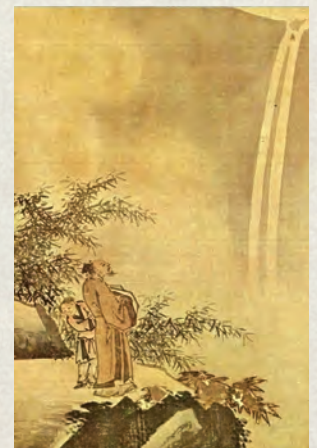
옛 선조들의 폭포 그림 중 조선 중기 왕족화가 낙파 이경윤(1545~1611)의 <관폭도>도 유명합니다. 낙파의 <관폭도>는 자연과 인간의 비중이 대등하게 조화를 이룬 산수인물화로, 폭포를 마주한 선비가 무념무상의 경지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보다 폭포의 윗부분과 우측면을 과감히 생략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인물을 감싸고 있는 물기 머금은 대나무, 부드럽게 표현



표암 강세황 송도기행첩 중 <박연>



검재 정선 <삼부연폭포>.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해악전 실험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낙파 이경윤 <관폭도>. 1600년경

된 선비의 옷 주름, 명상에 빠진 선비를 재촉하는 사동의 표정 등에서 화가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자연 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옛 선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림을 음미하며 즐기는 피서의 묘미가 아닐까요.

COMMISSIONERS ▶▶▶ 위원동정



황용석 위원,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와 정책방향> 학술세미나 토론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와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이용자 보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 위원은 AI알고리즘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와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알고리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승목 위원,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사회

양승목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7월 12일 서울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성숙한 선거방송토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양 위원은 사회를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이승선 위원,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이승선 중재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 7월 17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한계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경 위원, <2017 MTN방송광고 페스티벌> 심사

한은경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2017 MTN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와 광고모형을 선정했다. <2017 MTN방송광고 페스티벌>은 머니투데이 방송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9년째 개최해오고 있다. 한 위원을 비롯해 5명의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와 수상작을 결정하였으며, 시상식은 7월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되었다.



NEWS ▶▶▶ 위원회 뉴스

권우동 사무총장 퇴임

위원회 권우동 사무총장은 7월 27일 퇴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권우동 전 사무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위원회의 성장과 발전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화합을 통해 정의롭고 올바른 조국문화를 형성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위원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시상식 개최

위원회가 '우리 곁의 언론분쟁해결사'를 주제로 주최한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에서 총 7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다수의 작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대상은 검은 풍선과 하얀 풍선을 활용해 위원회의 기능을 묘사한 김솔·임준환 씨의 작품 <언론중재위원회,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드립니다>에 돌아갔다. 위원회는 7월 11일 시상식을 열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 contest.pa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무처 인사 2017. 8. 1.자

<전보> △총무팀장 이미경 △부산사무소장 여운규 △경남사무소장 최영훈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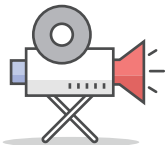
신별주부전

글/그림 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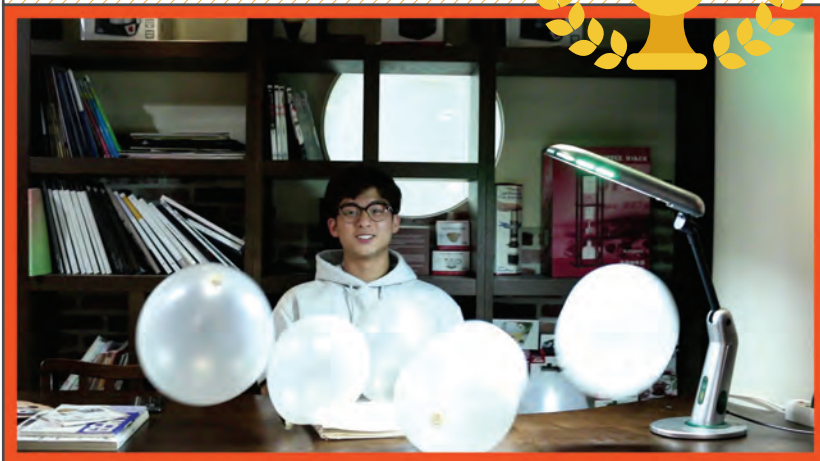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UCC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최한 제2회 언론중재위원회 UCC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작은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홈페이지 수상작 코너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contest.pac.or.kr/board/win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당신의 역을함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김술, 임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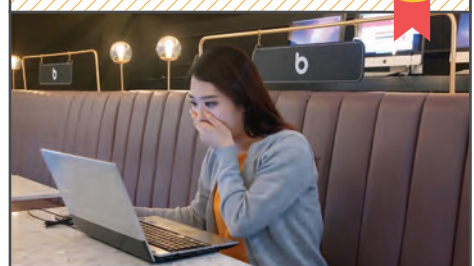
하루아침에 내가 방귀녀라고?
김태희, 김민수, 신교범

금상



'언제나' 중요하고 '위'안을 주는 친구,
언론중재위원회
김해은, 김민주, 서종범, 최미영, 장유리나

금상



추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김민아, 박이은

은상



시원한 한 방을 날려다
송은석

은상



언론중재위원회에 간 양치기 소년
구교현, 김혜리

동상



초도촬영 목장, 양치기의 비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상우

동상

